

2016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기도 자료집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 ·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목 차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

주제 성구 · 6

주제 소개 · 7

2016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자료 준비 · 12

일치기도 예식 · 13

8일 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 22

제1일 그 돌을 굴려 치워라(겔 37:12 참조) · 22

제2일 기쁨을 전하는 이가 되라고 부름 받다(사 61:1 참조) · 24

제3일 친교의 증언(시 122:6-7 참조) · 26

제4일 복음 선포의 부르심을 받은 사제직의 백성(창12:7 참조) · 28

제5일 사도들의 친교(행2:42 참조) · 30

제6일 꿈 이야기를 들어 보라(창37:6 참조) · 32

제7일 기도를 위한 환대(사 62:6 참조) · 34

제8일 일치로 갈망하는 마음(골1:27 참조) · 36

라트비아의 교회일치운동 상황 · 38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주제 목록 · 43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47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교회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직제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자료의 수정

이 자료는 지역 차원의 용도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해도 좋다는 양해 아래 제공된다. 수정할 때는 그 지역의 전례나 신심 관행,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몇몇 지역에서는 자료 수정을 위한 교회 일치 기구들이 이미 조직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수정 작업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자료의 사용

- 공통된 하나의 예식으로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지내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일치기도예식서가 된다.
-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예식에 기도주간의 자료를 끼워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일치기도예식서의 기도들이나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또는 이 자료에 첨가된 기도 가운데 일부를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지내는 공동체들은 그 주간에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 내용들을 그 예식에 도입할 수 있다.

- 또한 이 기도 주간의 주제에 관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8일간의 성경 묵상과 기도’에 제시된 성경 구절들과 묵상 자료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날마다 별이는 토론은 청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자료가 그들의 기도 지향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의 더욱 명백한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주제 성구

베드로전서 2장 9~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제 소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벧전 2:9)

1. 배경

라트비아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세례대는 라트비아의 위대한 복음사가인 마인하르트 성인(St. Meinhard)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이 세례대는 이크슈킬레(Ilkskile) 주교좌성당에 있었다. 오늘날 이 세례대는 이 나라의 수도 리가(Riga)의 바로 중심부에 있는 루터교 주교좌성당에 있다. 이 주교좌성당의 화려한 설교대 가까이에 놓여 있는 세례대의 위치가 세례와 선포의 관계, 그리고 모든 세례 받은 이가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부르심이 2016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주제가 된다. 라트비아의 여러 교회들의 구성원들은 베드로의 첫째 서간 2장에 나오는 두 절에서 영감을 얻어 이 일치기도주간의 자료를 준비하였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10세기 비잔틴 선교사들이 동라트비아에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라트비아의 그리스도교가 12세기와 13세기에 시작되었고, 마인하르트 성인의 복음화 선교와 그 이후의 다른 독일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도입된 것으로 대부분 추정된다. 수도인 리가(Riga)는 16세기에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인 최초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고, 18세기에는 모라비아 선교사들(헤른후트 형제회Hermhut Brethern)이 와서 다시 선교하고 라트비아 전역에 걸쳐 그리스도교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들의 후예가 1918년 라트비아 독립의 기초 수립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수많은 분쟁과 고통의 시기를 거친 지난날의 흔적이 오늘날 라트비아의 교회 생활에 뚜렷이 남아있다. 일부 초기 선교사들과 십자군 전사들의 무력 사용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했던 것은 슬픈 일이다. 수세기에 걸쳐 라트비아 국토는 여러 민족과 교파 권력들을 위한 종교적 정치적 전장이 되었다. 이 나라 여러 지역의 정치권력의 변화가 흔히 사람들의 소속 종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라트비아는 로마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지역이 만나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라트비아는 매우

다양한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이지만 그 어느 전통도 지배적이지 못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러시아와 독일제국의 멸망으로 라트비아는 1918년부터 1940년까지 처음으로 국가로 존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수십 년의 전체주의적 적그리스도교 이데올로기, 곧 무신론적 나치즘과 공산주의는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무너질 때까지 라트비아 국토와 국민들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무릅쓰면서까지 하나가 되어 복음을 함께 증언하였다. 라트비아의 슬로스칸 주교 박물관(Bishop Sloskans' Museum)에는 이러한 공동 증언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정교회, 루터교, 침례교, 천주교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의 명단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랜 고문과 유배와 죽음을 이겨내면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임금의 사제단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고통의 유대로 라트비아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깊은 친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깊은 친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 되어 자신들의 고통을 다른 이들의 선익을 위하여 바치는 세례의 사제직을 다시 발견하였다.

라트비아 국가인 “하나님, 라트비아를 축복하소서”(God bless Latvia)를 포함하여, 함께 노래하고 기도한 경험은, 라트비아가 1991년에 다시 독립하는 데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모든 도시의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갈구하는 열렬한 기도를 바쳤다.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도와 노래로 하나 되어 리가의 도로에 장벽을 치고 소련 탱크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있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전체주의의 어둠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신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소비에트 제국 이후의 시대에는 교회의 쇠신이 이루어졌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모임이나 교회일치 행사에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다. 그리스도의 빛과 은총이 라트비아 국민 전체의 가슴에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라트비아 사회를 훼손시키는 역사적, 민족적, 이념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자 한다.

2.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의미를 찾아 헤매던 초기교회는 한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겨레가 되라는 부르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구원의 힘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요한 3:5 참조).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은총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스도 안의 이 새로운 정체성을 날마다 의식하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이다.

-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공통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우리는 ‘임금의 사제단’으로서 세례로 얻은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3. 주님의 위업에 귀 기울이기

세례는 흥을 돋우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주어 모든 시대의 모든 새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백성과 하나 되게 한다. 하나님 말씀, 곧 모든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연구와 성찰에 도움을 주는 성경은, 공동체의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 참다운 친교의 기초가 된다. 성경의 거룩한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 역사 안의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관한 것을 듣는다. 여기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업, 곧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일이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업도 깨닫게 된다.

-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업”을 알아보고 그에 응답하는가? 예배와 찬송,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응답하는가?
-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우리를 더 큰 일치와 사명으로 부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여기는가?

4. 응답과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권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덕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봉사에 헌신할 때에만 거룩하다.

사제직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례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한다.

상처의 치유: 전쟁과 갈등과 학대는 라트비아와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정서 생활과 [인간] 관계 생활에 상처를 주었다. 하나님의 은총은, 화해와 치유를 방해하는 장애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얻으며 더욱 거룩해지도록 해준다.

진리와 일치에 추구: 그리스도 안의 우리의 공통 정체성을 인식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는 문제들의 답을 찾는 노력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는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우리의 공동순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인간 존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어둠에서 불러 나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 생명의 특별한 존엄을 깨닫는다. 함께 하는 사회활동과 자선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중독된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간다.

-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여야 하는가?
-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어떻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회 활동과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가?

5. 자료 소개

교회 일치 행사에는 성경, 촛불, 소금과 같은 상징물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는 놀라운 일을 가지적으로 표현한다. 소금과 빛은 모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복음적 이미지이다(마태 5:13-16 참조). 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나타낸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또한 이는 우리의 사명을 나타낸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의 이미지이다. 우리는 흔히 단조롭고 공허하게 보일 수 있는 삶에 향취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고 이해하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듣는다.

라트비아의 다양한 교회일치 활동의 대표들은 정해진 주제와 그들의 활동 경험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들의 성찰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8일 동안 날마다 제공된 자료의 기초가 되었다.

2016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 준비

올해의 일치기도주간의 기도 자료는 로마 가톨릭 리가 대교구장 즈비그네우스 스탄케비치스(Zbig evs Stankevi s) 대주교님의 초대로 라트비아 여러 지역의 많은 대표들이 준비하였다.

특히 아래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안다 도네(Anda Done, 루터 교회)
- 레비 이바르스 그라우딘스(Levi Ivars Graudins, 모든 민족들을 위한 라트비아 기도의 집)
- 자나 헤르마네(Zanna Hermane, 베르티칼레 텔레비전, 주일 아침 그리스도교 프로그램)
- 닐스 잔손스(Nils Jansons, 슈맹 뇌프Chemin Neuf 공동체)
- 리타 레팔로 수녀(Rita Refalo, 프로상티타테운동Pro SanctitateMovement)
- 벨타 스콜메이스테레(Velta Skolmeistere, 리가 대교구 청년 센터)
- 군타 지에멜레(Gunta Ziemele, 리가 대교구 청년 센터)

여기에 제안된 자료는 일치기도주간을 공동 주관하는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임명한 국제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국제준비위원회 위원들과 라트비아 교회 대표들은 2014년 9월 리가 총대주교좌 로마가톨릭신학교(Riga Metropolitan Roman Catholic Seminary)에 모였다. 그들은 기꺼이 회의를 유치하여 준 파울스 클라빈슈(Pauls Klavins) 몬시놀과 친절하게 맞이해 준 직원들과 신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특별히 이들의 작업과 방문을 도와 준 아이바르스 리시스(Aivars Licis) 신부와 카를리스 미켈손스(Karlis Mikelsons) 신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준비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라트비아 최초의 대성당(1186년 봉헌)의 유적이 있는 이크슈킬레(Ikskile) 근처다우가바(Daugava) 강의 성 마인하르트 섬(Island of St Meinhard), 리가의 루터교와 가톨릭교회 주교좌 성당들, 리가 구시가지의 성공회의 성구세주 성당(St. Saviour's Anglican Church)을 함께 방문하였다. 이러한 방문은 이 자료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치기도 예식

예식 소개

라트비아 자료준비위원회는 여러 교회 대표들이 성경, 촛불(파스카초나 부활초)과 소금 한 그릇을 들고 입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상징물들은 여러 교파가 각각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경은 독서를 위하여 독서대 위에 놓고, 소금과 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므로 독서대 옆에 놓거나, 세례성사의 부르심을 상징하므로 세례대 옆에 놓을 수 있다.

작은 초들을 담은 바구니를 지성소에 놓아, 강론이 끝나고 예식 시작 때에 들고 들어온 촛불에 회중이 각자 자기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특정한 성가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라트비아 자료준비위원회는 삼위일체 성가를 추천했다. 또한 응송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와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를 부를 것을 제안했다. 자료에는 말씀의 전례 때에 회중이 하는 짧은 응송이 준비되어 있다. 독서 도입부에 사랑의 폭발explosion of lov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프로상티타테’Pro Sanctitate 운동의 창시자인 굴리엘모 자퀸타 Guglielmo Giaquinta가 처음 사용한 것이다. 이 운동은 라트비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행사 준비에 그 운동의 회원들도 함께 하였다.

예식을 마치고나서

라트비아에서 환대의 상징은 빵, 특히 검은 빵이다. 사람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친구들은 흔히 축복의 표시로 십자가 모양으로 소금을 뿌린 빵 한 덩어리를 선물한다. 라트비아 자료준비위원회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여 예식을 마친 다음 나눔의 시간에 이 환대의 행동을 따라할 것을 권유하였다.

예식 구조

※참고: 청각 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예식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식은 여덟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I. 입당 성가

- 환영 인사와 일치기도주간 주제 소개

II. 성령 청원 기도

III. 화해의 기도

IV. 하나님 말씀 선포

V. 소금과 빛이 될 것을 서약하는 예식

VI. 희망의 기도

VII. 평화의 나눔

VIII. 강복과 파견

-퇴장 성가

예식 순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1. 입당 성가/준비

- + 인도자
- ◎ 회중
- 해설자

입당 성가

예식을 인도하는 이들이 입당한다. 성경과 촛불과 소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환영 인사와 일치기도주간 주제 소개

해설자가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하며 기도 주제를 소개한다.

- +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존엄과 소명에 감사드리며, 일치기도 예식을 거행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겨레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 예식을 준비한 라트비아의 그리스도인들과 일치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더욱 깊이 하도록 기도합니다(벧전 2:9 참조).

II. 성령 청원 기도

- +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선물이신 성령이시여, 저희 모두 안에 머무르시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주소서.
- ◎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임하소서.

+ 하나님 사랑이시며 일치와 거룩함의 원천이신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소서.

◎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임하소서.

+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이시여,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어 저희 마음에,
공동체에,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분열을 없애주시어 저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임하소서.

+ 성령이시여,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분열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친교를 가져다 주셨나이다.

◎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임하소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저희 안에 머무르시어 저희가 사랑과 거룩함의
친교를 이루게 하소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 아멘.

찬가

Ⅲ. 화해의 기도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해하고 거룩해지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변화시켜 거룩함에 이르는 화해의 은총을 받도록
합시다.

침묵

- + 주님, 주님께서서는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저희를 창조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연과 세상을 보호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것처럼 저희도 완벽하라고 하시나이다.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 +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주님, 죽음과 전쟁과 부정의 문화를 퍼뜨리며 사랑의 문명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총과 거룩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저희가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IV. 하나님 말씀의 선포

- 저희가 듣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안에 사랑의 폭발입니다.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5,1-3

○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45(144),8-9. 15-16. 17-18

○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모든 눈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시나이다.
주님의 손을 벌리시어
모든 생물을 호의로 배불리시나이다.

◎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께서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주님을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벧전 2:9-10

-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 ◎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 5:1-16

-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 ◎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론

V. 소금과 빛이 될 것을 서약하는 예식

인도자는 회중을 다음과 같이 초대한다.

- + 저희는 저희가 찬미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의 한 식탁에 함께 모여 양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거룩한 말씀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라는 하나의 사명에 저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명의 표징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와 이 소금을 맛보고
이 하나의 불꽃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이도록 초대합니다.
이 예식이 끝날 때까지 그 불꽃이 타오르도록 하기 바랍니다.

Ⅶ. 희망의 기도

+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엄과 사명을 깨달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다짐합니다.

침묵

+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켜 주소서.

◎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 생명의 샘이시여,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목마름, 존엄과 사랑과 친교와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을 풀어주소서.

◎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 기쁨과 평화의 성령이시여, 권력과 돈의 악용으로 빚어진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화해를 이루도록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소서.

◎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 사랑의 삼위일체시여, 저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시어 삼위일체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소서.

◎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도 하나 되어 주님께 기도를 바칩니다.

◎ 주님의 기도(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VII. 평화의 나눔

-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 +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VIII. 강복과 파견

-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박해를 받는 사람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 아멘.

- +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십시오.

◎ 아멘.

퇴장 성가

8일 간의 묵상과 기도

제1일

그 돌을 굴러 치워라

겔 37:12-14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가겠다.

시편71(70):18-23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의 위력을,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롬8:15-21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마28:1-10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해설

오늘의 묵상은 리가 대교구 가톨릭 청년 센터에서 마련하였다. 이는 라트비아에서 해마다 거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교회 일치 십자가의 길Ecumenical Way of the Cross을 준비하며 얻은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체험은 라트비아의 상황에서 수난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위업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도록 한다.

- 라트비아의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시절의 역사는 여전히 라트비아 국민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큰 슬픔과 고통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들이 받은 상처를 잊기가 어렵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과 같다.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를 정신적 무덤에 가두어버린다.
- 그러나 만약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 하나가 된다면, 이야기는 여기에서, 곧 우리의 무덤 안에 갇힌 채 끝나지 않는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고 우리를 서로 고립시키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주는 지진과도 같은 사건이다.

- 이것이 주님의 위업이다. 주님의 사랑은 이 땅을 뒤흔들고 돌을 굴려 치워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우리를 불러내어 새날의 아침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이러한 새날에 우리는 갇히고 상처 입은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다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 막달라처럼 기쁨의 이 놀라운 순간에서 “서둘러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하여야 한다.

묵상 질문

- 우리의 삶과 환경에서 우리 자신을 무덤에, 곧 슬픔과 비탄, 걱정과 고민과 절망 안에 가두어 버리는 사건과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의 약속과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는 하나님 체험을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나눌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기도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셨나이다.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어 저희의 고통과 상처에 함께하시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나이다. 지금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사랑에서 저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장애를 내려놓나이다. 저희를 가두고 있는 돌들을 치워주소서. 저희가 주님 부활의 아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와 갈라진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제2일

기쁨을 전하는 이가 되라고 부름 받다

- 사 61:1-4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어 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억압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시편133(132)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 빌 2:1-5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요 15:9-12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해설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시절 라트비아에서는 대중매체에 그리스도인이 등장할 수 없었다. 라트비아가 독립을 하고 나서 라트비아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일치와 선교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교 방송을 시작하였고, 이는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 토론하는 장이 되었다. 상호 존중과 사랑과 기쁨의 이러한 공개 증언은 라트비아 교회 일치 생활의 정신에 기여하였다. 라트비아 국영 라디오 방송국의 그리스도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 이들의 체험이 다음의 목상을 이끌었다.

- 복음의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실천하도록 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어 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억압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다친 마음을 낫게 하여 주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기쁜 소식을 갈망한다.
-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슬퍼한다면 예수님께에서 오는 기쁨을 선포할 열정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증언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작은 것이 번성하도록 하여 주신다.
-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발견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 사랑과 기쁨은 일치를 위한 우리 기도의 핵심이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묵상 질문

- 무엇이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기쁨을 약화시키는가?
- 우리가 기쁜 소식을 증언하도록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지만 주님을 섬기려는 저희의 뜻을 굽어 살피주소서. 주님의 현존으로 저희 마음의 깊은 갈망을 이루어 주소서. 저희의 다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저희에게 일치의 선물을 주시어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모든 이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3일

친교의 증언

렘 31:10-13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할 것이리라.

시편 122(121)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여라.”

요일 4:16-21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 17:20-23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해설

교회 일치의 소명을 띤 국제 가톨릭 공동체인 ‘슈멩 뇌프’(Chemin Neuf, 새로운 길)는 라트비아에서 10년 넘게 천주교 신자와 루터교 신자 회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통한 기쁨과 더불어 분열의 고통도 경험한다. 이 분열의 표시로 저녁 기도 때에 그들은 빈 성반과 성작을 제대 위에 올려 둔다. 그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묵상을 이끈다.

-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은 복음화에 장애가 된다. 우리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일치의 성사인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받아 모시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분열의 고통을 느낀다.
- 우리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다. 날마다 친교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손을 들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는 주교들, 성직자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일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묵상 질문

- 우리는 다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들에 대하여 편견을 지닌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우리 저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을 감소시키고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에 따른, 주님의 방법에 따른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리나이다. 성령께서는 저희가 분열이 야기한 고통을 경험하고 저희의 죄를 깨닫고 모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주소서. 아멘.

제4일

복음 선포의 부름을 받은 사제직의 백성

- 창 17:1-8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시편 145(144):8-12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 롬 10:14-15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 마 13:3-9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해설

이 묵상은 주일 오전에 방송하는 그리스도교 프로그램인 베르티칼레Vertikale의 제작자들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라트비아 공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 그리스도교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도록 하는 도전은 제작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자매로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대화만이 아니라,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다른 사회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말의 홍수가 밀려든다. 이러한 말들은 세우고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말의 바다는 종종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를 채워주기보다는 혼란스럽게 한다.
- 우리는 깨달을 의미가 없는 말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로 던져졌다. 이 말씀은 우리를 친교로 부르고,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이들과 일치할 이루도록 한다. 예전에 우리는 한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 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제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이들과 일치할 이를 때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이러한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단순한 물방울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말해야 할 강력한 말씀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일치하여 힘차게 그 말을 할 수 있다. 예슈아Yeshua,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묵상 질문

- 어떠한 개인적 야망과 경쟁심,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함, 분노가 우리의 복음 선포를 어렵게 만드는가?
- 누가 우리에게서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듣는가?

기도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저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어, 저희가 지치지 않고 주님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가 부름 받아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나이다. 아멘.

제5일

사도들의 친교

- 사 56:6-8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시편 24(23)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행 2:37-42 그들은 신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요 13:34-35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해설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우애는 라트비아의 교회 일치적 삶의 가시적 표현이 된다. 지도자들을 라트비아의 가장 높은 산인 가이진스나 다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40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소박한 친교를 나눈다. 이 만남에서 신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도록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만남은 지도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로 거듭나게 한다. ‘모든 민족을 위한 라트비아 기도의 집’ 설립자의 경험은 이러한 성찰에 영감을 주었다.

-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친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향을 지니고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고 성령의 힘 안에서 기도할 때 현실화된다.
-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겸손과 인내로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수록 선입견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그리스도를 더 잘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욱 참되게 증언하게 된다.
- 때로 교회 일치는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의 친교, 함께 나누는 식사,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사도적 소박함의 길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일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아멘을 선포한다.

묵상 질문

- 그리스도인의 친교, 함께 나누는 식사, 함께 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로 만나는 체험에는 무엇이 있는가?
- 주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 줄 수 있는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한 몸과 한 성령, 한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그리고 만유의 주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한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일

꿈 이야기를 들어보라.

- 창 37:5-8 내가 곧 꿈 이야기를 들어 보셔요.
시편 126(125) 우리는 마치 꿈꾸는 이들 같았네.
롬 12:9-13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요 21:25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 내지 못하리라

해설

그리스도인의 불일치는 가슴 아픈 일이다. 교회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한 가족으로 일치하지 못하기에 고통을 받는다. 교회들은 경쟁과 투쟁의 역사로 고통을 받는다. 불일치에 대한 한 응답은 2005년 무엇이 우리를 일치시키는가? Kas Mus Vieno?라는 제목의 교회 일치 잡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잡지의 출판 경험은 다음의 성찰에 영감을 주었다.

- 요셉은 꿈을 꾸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반응한다. 그 꿈은 그들이 요셉 앞에서 큰절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기근으로 이집트로 가게 된 형들은 요셉 앞에서 큰절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굴욕이나 불명예가 아니라 화해와 은총의 순간을 체험한다.
- 요셉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전망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신다. 이는 일치의 전망이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는 종종 그 전망과 그것이 암시해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따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잃을 수도 있는 것을 근심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전망은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되찾는 것, 가족의 재결합에 대한 것이다.
- 우리는 교회 일치에 관하여 많은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문헌들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 일치의 전망은 합의를 이룬 성명서로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치,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전망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거나 책에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넘어선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우리의 삶과 기도와 사명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목상 질문

- 그리스도인 일치에 대한 우리들의 꿈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 일치에 대한 주님의 비전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에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가?

기도

하나님, 저희에게 겸손함을 주시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교회 일치의 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불일치의 고통을 저희가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분열로 완고해진 저희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전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7일

기도를 위한 환대

- 사 62:6-7 예루살렘아, 너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잠시도 잠잠하지 않으리라.
- 시편 100(99)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 벤전 4:7-10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 요 4: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해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8일 동안 날마다 함께 기도한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마을인 마도나(Madona)에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도록 해주었다. 이 우정의 특별한 결실로 도시 중심에 루터교, 천주교, 정교회 전통의 요소들로 완성된 교회 일치 경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마도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지속적인 고리 기도에 참여한다. 이 경험은 다음과 같은 성찰의 바탕이 되었다.

- 하나님의 백성이 갈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멀리한다면, 우리는 사마리아에 계신 예수님처럼 이방인이 되어 안전하지도 않고 기운을 북돋울 만한 것도 될 곳도 없게 된다.
-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갈망하였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주님의 위엄에 대하여 말한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주님의 백성이 밤낮으로 주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셨다.
- 일치기도주간에 우리 교회와 경당은 기도하고자 모이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쉬고 원기를 되찾는 곳이 된다. 이 주간에 우리는 기도를 위한 더 많은 장소와 안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도전에 당면한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한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묵상 질문

- 어떻게 우리는 우리 지역의 본당들과 공동체들이 서로 환대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가?
- 우리 주변에 서로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장소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기도

주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사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깨어 있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나이다. 저희가 이 세상에 안전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그 안에서 생기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하여 주소서. 아멘.

제8일

일치를 갈망하는 마음

- 사 52:7-9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구나.
- 시편 30(29)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 골 1:27-29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 눅 24:13-36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해설

라트비아의 여러 교회들은 ‘알파 코스’Alpha Course를 통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협력해올 수 있었다. 이 알파 코스는 런던 브럼튼의 성공회 성삼위교회가 개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을 알게 된 라트비아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 전통의 공동체들의 은사에서 배우고 부요해지는 것에 열려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다음과 같은 성찰에 영감을 주었다.

-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실망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버리고 떠난다. 이는 분리와 고립의 여정이다.
-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희망에 넘쳐 복음 메시지를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우의의 친교로 되돌아오도록 하였다.
-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심에서 복음화를 시도하며 자기만의 교회가 가득 차기를 바란다. 생명을 주는 복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다른 이들의 바람보다 야심을 앞세우는 것이다. 참된 복음화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고립에서 일치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묵상 질문

- 우리를 다른 이들과 분리시키는 실망에는 무엇이 있는가?
-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서 받을 수 있는 은사(계획, 방법, 프로그램)

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도

주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저희 안의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하시어, 복음 메시지를 전하러 우리의 형제자매를 향하는 길로 되돌려 보내셨나이다. 저희가 주님 계명에 대한 희망과 순종으로 언제나 주님 백성의 더 큰 일치에 이를 수 있음을 알도록 하여주소서. 아멘.

라트비아의 교회 일치 운동 상황

그리스도교 교회들

살아있는 교회 일치라는 말은 오늘날 라트비아의 교회 일치 상황을 설명한다. 다양한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지역과 행사에서 공동 기도와 증언을 위하여 서로 만나는 기회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라트비아에서] 가장 큰 세 교단들의 규모가 서로 비슷한 사실에서도 나온다. 그렇지만 소규모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전통의 일종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2011년 기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라트비아 국민의 34.3%가 루터교 신자이고, 25.1%가 로마 가톨릭 신자이며, 19.4%가 정교회와 구파 정교회 신자이다. 그리고 1.2%는 침례교, 재림교, 오순절교, 그리고 여러 자유 교회들에 속한 신자들이다. 라트비아 국민의 20%는 그 이외 종교들의 신자이거나 무신론자이다. 라트비아는 6개 종교 전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여기에는 루터교, 천주교, 침례교, 정교회, 구파 정교회, 유대교가 있다.

교회 일치의 실천

비록 라트비아 교회들이 전국 차원의 교회 협의회를 이루어 함께 모이지는 않지만 교회 일치의 삶은 계속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의견들이 넘치는 후기 근대 사회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라트비아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라트비아의 다양한 교파들 사이의 교회 일치적 협력과 그 관계는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트비아에서는 천주교, 정교회, 루터교, 침례교의 주교나 총회장들이 윤리나 생명 보호, 또는 사회 정의에 관한 대 사회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관행이다. 라트비아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의 수장들의 관계가 돈독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현직 대주교의 서임식이 리가의 루터교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기도 하였다.

라트비아의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은 11월 18일 독립기념일과 같은 가장 중요한 기념일과 공휴일을 함께 거행한다. 이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연설을 하며,

여러 그리스도 교회들의 음악가들이 연주를 한다. 이 지도자들은 매년 한 차례 총리가 주재하는 ‘영적 직무 위원회’(Spiritual Affairs Council)에 함께 참석한다. 4대 주요 그리스도교 전통은 국가와의 협의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공동 제작하였다.

그런데 라트비아의 그리스도교 교회의 주교나 총회장들과 사제들 간의 관계는 교회 일치의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참다운 우정을 나눈다. 이는 지난 세기에 쌓였던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복음의 동료 사제로 인정하도록 해준다. 천주교, 루터교, 침례교 주교나 총회장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다. 그들은 형제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라트비아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한다.

또한 본당 차원의 공동체들의 교회 일치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알파 코스’(Alpha Course)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 조직 복음화 프로그램들이 있다. 천주교의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본당과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본당, 토르나칼른스(Tornakalns)에 있는 리가 루터교 교회, 아겐스칼른스(genskalns)에 있는 침례교 공동체는 함께 모여 우의를 나누고 사회 사업을 추진하며 달력을 출판한다. 2000년부터는 마도나의 여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동안에 날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공동체 안에서 이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많은 이들은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을 따르는 그들의 형제자매를 처음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특별한 열매가 바로, 여러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기도할 수 있는 라트비아 최초의 교회 일치 기도 소성당의 건립이었다. 이 소성당의 문은 밤낮으로 열려있다. 천주교와 루터교 신자들은 순번을 정하여 사람들이 이 소성당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회나 본당이 조직하는 활동 이외에도 의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교회 일치 계획들이 있다. 감동적인 예 가운데에 하나가 이가테(Igate)라는 작은 마을에 세워진 라트비아 최초의 세례자 요한 성인과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소성당의 건립이다. 이 소성당의 건립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 소성당은 라트비아의 루터교, 천주교, 정교회, 침례교와 같은 4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신자들이 사용한다. 2013년 1월 18일에 천주교, 루터교, 침례교 주교나 총회장들이 이 소성당을 축성하였다. 이가테 사람들의 특별 지향에는 태어난 아이들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포함된다.

개인이 계획한 또 다른 예에는 ‘가이진스 정상회담’(Gaizins Summit)이 있다. 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라트비아의 가장 높은 산인 가이진스에서 열리는 우의와 기도를 위한 모임에 라트비아의 여러 교회의 수장들을 초대하였다. 이 수장들은 그 초대에 응하였다. 이 회담 기간에 신자들은 이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 모임은 지금까지 7차례 개최되었고, 모임이 거듭될수록 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이 우리를 일치시키는가? 는 10년 전 한 개인 평신도가 교회 일치를 위한 간절한 바람에서 영감을 얻어 창간한 잡지이다. 이 잡지의 창간호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후에 나오는 호들은 교회 일치와 관련한 특정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잡지는 여러 교회들의 지역 공동체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교회 일치를 위한 협력은 다양한 기도 모임과 ‘슈맹 뇌프’(Chemin Neuf), ‘푸른 십자가’(Blue Cross), ‘클란스콜라’(Kalskola), ‘에파타’(Effata)와 같은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교도소 사목이나 약물과 알코올 중독자 재활 센터인 ‘베들레헴 자비의 집’과 같은 사회 활동 계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양한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운동과 단체에서 매일 기도와 선교를 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그들의 일상적인 봉사를 통하여 교회 일치에 기여한다.

라트비아의 풍요한 그리스도교 전통들은 가정생활에도 영향이 미친다. 많은 혼종혼 부부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분열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상생활에서 직면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혼인 예식, 자녀의 교리교육, 주일 예배 참석과 더불어 충실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찬례가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또한 현대의 세계화된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문제에도 당면한다. 가정 전문 봉사 단체인 ‘카나 형제애’(Cana Fraternity)는 1994년부터 라트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정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가정의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교회 일치 가정 축제들은 리가 시 당국의 협력으로 2006년에 시작되었다. 이 행사들은 3대 주요 전통이 협력하는 가운데 특히 라트비아의 여러 자유 교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오늘날 매체는 복음화에 매우 중요하다. 한 교회 일치 단체가 라트비아 국립 라디오에서 정기적으로 방송되는, 라트비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우의 증진을 위한 그리스도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가톨릭 비디오 정보 센터인 ‘이마누엘’은 라트비아 제1방송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베르티칼레’(Vertikale)를 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리스도인을 갈라놓는 것보다는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정교회, 천주교, 루터교, 침례교,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그리스도 증언을 추구한다. 여기에 더해 복음주의적 라디오 방송국인 ‘라트비아 그리스도교 라디오’가 있다. 여기서는 교회 일치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방송한다.

해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면 쿨디가(Kuldiga), 발미에라(Valmiera), 마도나(Madona), 리에파야(Liep ja)와 같은 라트비아의 여러 도시들의 거리에서는 십자가의 길이 거행된다. 리가에서는 리가 대교구 가톨릭 청년 센터가 교회 일치 십자가의 길을 조직하여 루터교, 침례교, 오순절교, 천주교, 그리고 여러 다양한 교회들의 수천 명의 신자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이 행렬에서는 여러 교회들의 주교나 총회장들과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나란히 행진한다. 통상적인 십자가의 길을 거행하는 가운데 라트비아의 여러 극단의 전문 배우들의 공연도 적절히 이루어진다. 이들의 종교 또한 다양하다. 십자가의 길의 기도는 사람들이 단지 종교적 영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방법으로도 일치를 이루도록 한다. 이러한 공동 경배와 성찰의 계기를 맞이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의 기도로 일치를 이룬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한 도전들

라트비아에는 교회 일치 운동의 발전을 가져오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 어느 한 교회가 지배적이지 않고 다양한 교회 일치 활동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러한 활동들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체를 통하여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치 관계에 매우 잘 열려 있는데 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거부 반응을 보인다.

또 하나의 도전은 라트비아에 교회들 사이의 공식적인 신학 대화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많은 문제들에 교회 일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평신도들이 교회 일치 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 일치의 발전은 교회 일치 행사의 성공적인 실현을 보장하는 인간관계와 우의에 크게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한 교회가 주도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여러 교회가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열성적인 이들이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다. 교회의 과제는 교회 일치 계획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끝으로 교회 일치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은 라트비아 정교회(모스코바 총대주교구)에 속하는 형제자매의 유대를 약화하는 정치적 상황이다. 따라서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주제 목록

1968-2016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양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는 1968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도 주간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엡 1:14)

1969년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갈 5:13)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0년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고전 3:9)
(독일 니더알트아이흐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1년 “성령의 친교”(고후 13:13)

1972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요한 13:34)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3년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눅 11:1)
(스페인 몬세랏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1974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합니다”(빌 2:1~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5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하나님의 계획”(엡 1:3~10)
(오스트레일리아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6년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요일 3:2)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리브 교회 회의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준비모임)

1977년 “희망을 갖고 함께 인내하십시오”(롬 5:1~5)
(나전 중인 레바논에서 초안 준비,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78년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엡 2:13~22)
(영국 맨체스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1979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벧전 4:7~11)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80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마 6:10)
(구 동독의 베를린에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1981년 “하나이신 성령과 여러 은사, 하나인 몸”(고전 12:3~13)
(미국 그레이머에 있는 속죄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부들이 초안 준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준비모임)

1982년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시 84[83]편)
(케냐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준비모임)

1983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요일 1:1~4)
(아일랜드 교회 일치 단체가 초안 준비, 스위스 셸리니[보세]에서 준비모임)

1984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고전 2:2; 골 1:20)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준비모임)

1985년 “하나님께서서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엡 2:4~7)
(자메이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그랑상에서 준비모임)

1986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행 1:6~8)
(유고슬라비아[슬로베니아]에서 초안 준비, 유고슬라비아에서 준비모임)

1987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6:4)
(영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떼제에서 준비모임)

1988년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요일 4:18)
(이탈리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피네콜로에서 준비모임)

1989년 “공동체 건설, 그리스도 안에 한 몸”(롬 12:5~6)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 영국 웨일리 브리지에서 준비모임)

1990년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 17장)
(스페인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준비모임)

1991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시 117[116]편; 롬 15:5~13)
(독일에서 초안 준비, 독일 풀다 지역의 로텐부르크에서 준비모임)

1992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가라”(마 28:16~20)
(벨기에에서 초안 준비, 벨기에 브뤼주에서 준비모임)

- 1993년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갈 5:22~23)
([현재 공교 민주 공화국인] 구 자이르에서 초안 준비, 스위스 취리히 근교에서 준비모임)
- 1994년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행 4:23~37)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준비모임)
- 1995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또 서로서로 이루는 친교”(요 15:1~17)
(신앙직제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영국 브리스틀에서 준비모임)
- 1996년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계 3:14~22)
(포르투갈에서 초안 준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준비모임)
- 1997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고후 5:20)
(북유럽 교회 일치 위원회에서 초안 준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준비모임)
- 1998년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롬 8:14~27)
(프랑스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리에서 준비모임)
- 1999년 “하나님께서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계 21:1~7)
(말레이시아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보세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0년 “하나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빚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엡 1:3~14)
(중동에서 초안 준비, 이탈리아 베르나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 2001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1~6)
(루마니아에서 초안 준비, 루마니아 볼칸에서 준비모임)
- 2002년 “청년 주님께는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시 36[35]:6~10)
(유럽주교회의협의회와 유럽교회협의회에서 초안 준비,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근교에서 준비모임)
- 2003년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고후 4:4~18)
(아르헨티나에서 초안 준비, 스페인 로스 루비오스에서 준비모임)
- 2004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 14:23~31; 14:27)
(시리아 알레포에서 초안 준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준비모임)
- 2005년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고전 3:1~23)
(슬로바키아에서 초안 준비, 슬로바키아 피에스타니에서 준비모임)
- 2006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 18:20)

(아일랜드에서 초안 준비, 아일랜드 킬대어 주 프러스페러스에서 준비모임)

2007년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막 7:31~37)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파베르주에서 준비모임)

2008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살전 5:13~18)
(미국에서 초안 준비, 미국 개리슨 시 그레이모어에서 준비모임)

2009년 “네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겔 37:15~28)
(한국에서 초안 준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준비모임)

2010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눅 24:48)
(스코틀랜드에서 초안 준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준비모임)

2011년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서 하나 되기”(행 2:42
참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초안 준비, 시리아 사이드나야의 크리스토포루스
수도원에서 준비모임)

2012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58참조)
(폴란드에서 초안 준비-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준비모임)

2013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미 6:6~8참조)
(인도에서 초안 준비-인도 방갈로르에서 준비모임)

2014년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고전 1:1~17참조)
(캐나다에서 초안 준비-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준비모임)

2015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요한 4,7)
(브라질에서 초안 준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준비 모임)

2016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벤전 2:9)
(라트비아에서 초안 준비, 라트비아 리가에서 준비 모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들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나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튀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오로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 기도 주간의 준수를 장려
-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2016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집

1월 18일~25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110-73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기독교회관 706호

전 화 02-743-4471

팩 스 02-744-6189

출판협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원문: Resources for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and throughout the year 2016, Called to Proclaim the Mighty Acts of the Lord (cf. 1Peter 2,9)

Jointly prepared and published by the Pontifical Council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and 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독일어와 이탈리아어 판도 참조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chrstuni/weeks-prayer-doc/rc_pc_chrstuni_doc_20150526_week-prayer-2016_en.html